



**동체대비 나눔운동 확산** 올해 불교계 최대화두는 단연 나눔운동. 장기화된 경제침체와 불황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교계는 동체대비(同體大悲) 사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온정의 손길을 펼치며, 자비실천인 '나눔'을 확산시켰다. 올 한해 괄목할만한 나눔운동에는 본지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전개한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과 조계종 '나눔의 하나되는 세상' 태고종 '1사할 1선행하기 운동' 천태종 '나눔 하나되기운동' 진각종 '행복 릴레이 만월회' 생명나눔실천회 '굴기승운동' 등이 계속됐다.

# '불교적 삶' 관심 집중

2004년 불교계는 조계사와 현대불교가 공동 주최

## 본지 선정 2004 10대 뉴스

미롭다. 불황이 계속되면서 불교계 각종단과 단체들

한 '간화선 증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법회'를 시작으로 선수행 열풍에 휩싸였다. 수행과 교육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교를 바라보는 세인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웰빙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신문과 방송마다 수행과 명상, 차문화, 템플스테이, 출가 등 불교적 삶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도 흥

의 '나눔운동'도 활기를 띠었다. 오랜 전통 끝에 재가대중을 대표하는 조계종 통합신도회가 탄생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명박 서울시장, 정장식 포항시장 등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편향된 종교의식은 종교간 화합을 바라는 국민들과 불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아쉬움을 남겼다.



**禪 수행 열풍** 올해 한국불교계는 전국을 휘감은 '선법랍'의 열기 속에 '전통선(禪)'의 진수를 맛보려는 불자들의 수행의지가 어느 해보다 뜨거웠다. 조계사에서 시작된 '간화선 증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법회'를 필두로, 봉은사 '육조단경법회', 대구 동화사 '담선법회'를 비롯, 보문사, 불광사 등 각 사찰 마다 연중 끊이지 않고 선법회가 열려 '수행열풍'을 일으켰다. 또 조계종의 간화선 수행지침서·교안 발간 준비, 태고종립의 간화선 증흥총영장판 등 간화선 증흥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해보다 활발하게 진행됐다.



**금강산 신계사 남북공동 복원** 금강산 신계사 대웅전 복원은 분단이후 민족적 동질성 회복의 첫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북 불교계는 1951년 한국전쟁 중 3층 석탑만을 남기고 모두 불타버린 신계사를 2007년까지 공동으로 복원하기로 하고 지난 2000년 남북간 첫 논의를 시작했다.

남측은 복원에 필요한 목재와 예산 등 85억원을 부담하고 북측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11월 20일, 만 4년 만에 대웅전을 낙성하는 감격을 맛보았다.



**조계종 신도회 통합** 1994년 창립된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기존의 전국신도회로 양분됐던 조계종 신도조직이 하나로 통합됐다. 5월 7일 조계사에서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는 통합대회를 갖고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로 공식 출범했다. 체계적인 신도운동과 재가불자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에 따라 2003년 4월 통합 선언 이후 1년 만에 이뤄낸 쾌거다. 신도회 통합으로 늘 종단의 주역인 이면서 객체였던 재가대중이 종원에 명사된대로 사부대중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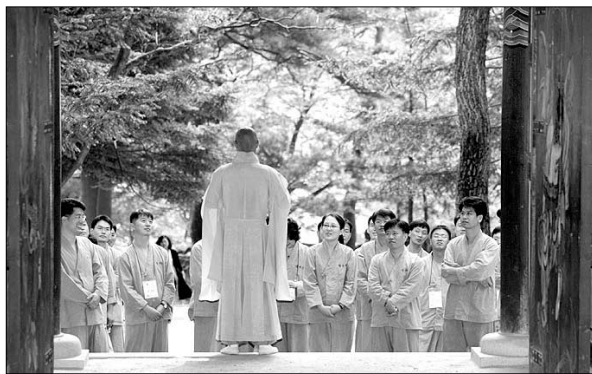


**여성불자들 대규모 국제대회** 국내외 여성불자들이 한데 모여 학술발표와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해 한바탕 축제의 장을 펼쳤다. 안양 한마음선원은 올 5월 '한국 비구니의 삶과 수행'에 대한 국제학술회의를 열고 한국 비구니 승단의 역사적 의의와 활약을 집중 조명했다.

6월에는 전국비구니회 주최로 세계 40여개국 여성불교 지도자들이 중앙승가대학교에 모여 '제8회 세계여성불자대회'를 치렀다. 이 행사는 최대 1500여명이 참가, 불교계 행사 가운데 가장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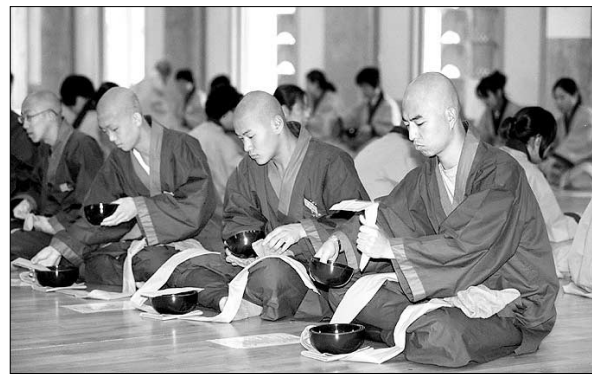


**기쁜 웰빙 바람** 올해 한국 최고의 키워드는 '웰빙(well-being·참살이)'이었다. 물질로써 성장과 인락을 추구하던 이전 세대와는 달리, 정신과 신체의 고른 건강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다. 정신의 풍요가 강조되면서 요가·명상이 확산됐고, 유기농 제품·천연 소재 상품들도 인기를 끌었다. 특히 불교적 삶이 웰빙의 '핵'으로 부각됨에 따라 참선열풍이 거세졌다. 그러나 웰빙이 외형에 집착한 채 상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에는 '웰빙의 정신과 철학을 고민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템플스테이 각계각층서 호응**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템플스테이가 기업연수, 대학 정규과목 개설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활짝 꽃을 피웠다. 기업체 연수에서부터 수험생을 위한 템플스테이까지 그 주제와 테마도 다양해졌다.

중앙대 한신대 한국전통문화학교 등은 템플스테이를 정식화된 인성교육의 하나로 개설했다. 문화재청은 직원연수와 통도사 템플스테이로, 구미공단 외국기업CEO 투자설명회를 비롯, 공무원, 기업, 학생, 외국인 등 각계각층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인기 폭발** 평창 월정사주지 정법가 한 달 동안 출가자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단기출가학교'를 개설해 신형의 새 지표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단기출가학교 참가자들은 한 달 동안 1080배, 사발식, 철야 3000배, 용맹정진, 조식예불 등을 통해 정식 출가 못지않은 치열한 구도의 열정을 보였다. 특히 MBC는 창사특집 단기출가학교 1기생들의 사연과 수행모습을 담은 2부작다큐멘터리 '출가'를 방영해 일반인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이로 인해 3기 생 모집에 3백여 명이 넘는 인원이 지원, 주위를 놀라게 했다.



**불교출판문화협회 재창립** 장기화된 경제 불황과 출판시장 침체로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 있던 불교출판사들이 불교 출판문화 진흥과 문서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원택, 장정각 대표)'를 발족했다.

불교출판문화협회는 90년대 초 발족했던 불교출판협회의가 확대, 재편된 것으로 불교계 18개 출판사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사찰에 도서관 마련, 불교 전문필자 공동 개발 및 활용, 공동 유통망 설립, 책임기 모인 활성화 등을 통해 불교계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에 있다.



**기관장 종교편향 발언 물의** 이명박 서울시장의 5월 한 개 신고 종교대회에서 '서울시 봉헌' 발언으로 이웃종교인들의 분노를 산데 이어, 정장식 포항시장은 5월말 '포항성시화' '시 예산 1% 선교사용' 등 의사를 밝혀 물의를 빚었다. 이밖에 목포 시장 등 곳곳에서 기관장들의 종교편향적 행태는 끊이지 않았다.

끝내 12월 15일 종교편향에 분노한 포항·경북지역 불자 3만여 명이 대구로 규탄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기관장 흘리러림이 해체되고 정장식 시장은 불교계에 사과하면서 기관장들의 종교편향적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

## 중국 하남성 불교사찰 전세기 투어

최초부터 최고의 사찰을 한번에 만날수 있는 기회

- 출발일: 2005년 2월 9일 (4박 5일 투어) ● 요금: 599,000원

최고의 소림사 최초의 백마사 중국 3대석굴 용문석굴 포청천의 개봉부 관우의 관림 등

공항세, 출국세, 전쟁보험금 포함 비자수수료 및 가이드 팁 별도

- 주요명소: 달마대사가 설립한 소림사 중국최초 불교사찰 백마사 중국 3대석굴 용문석굴 관관 포청천의 개봉부 삼국지 관우의 묘지

● 비자 신청 서류  
여권 카피 1부 팩스 송부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일정표 ◆

| DATE   | CITY | TRANSIT | TIME  | LOCAL SERVICE                                                                                                | MEALS    |
|--------|------|---------|-------|--------------------------------------------------------------------------------------------------------------|----------|
| 2월 9일  | 인천   | 전세기     | 22:50 | 전세기로 서울 출발 / 정주 도착 후 호텔유식                                                                                    |          |
|        |      |         | 23:50 | 호텔: 정주 홍산호 호텔(4성급) 또는 동급                                                                                     |          |
| 2월 10일 | 정주   | 전용버스    | 전 일   | 호텔 조식 후 등불, 달마대사가 설립한 소림사, 역대 고승의 부도인 탑당, 소림사 무술 시범단 무술시범관, 현지 중식 후 중국 최초의 불교사찰 백마사 관림. 낙양에 도착 후 석식 및 호텔 유식. | 조식 중식 석식 |
|        |      |         |       | 호텔: 낙양 모란성 호텔(4성급) 또는 동급                                                                                     |          |
| 2월 11일 | 낙양   | 전용버스    | 전 일   | 호텔 조식 후 중국 3대 석굴인 용문석굴, 백린 관림. 현지 석식 후 삼국지 관우의 묘지인 관림 관림. 개봉으로 향함, 석식 및 호텔 유식.                               | 조식 중식 석식 |
|        |      |         |       | 호텔: 개봉 옥상 호텔 (4성급) 또는 동급                                                                                     |          |
| 2월 12일 | 정주   | 전용버스    | 전 일   | 호텔 조식 후 명대, 청대에 남방 귀족상인들이 모임을 가졌던 산성관화관, 포청천의 관지 포공사 관림. 현지 중식 후 관림 포청천의 개봉부, 청담공원 관림. 정주로 향함 석식 및 호텔 유식.    | 조식 중식 석식 |
|        |      |         |       | 호텔: 정주 홍산호 호텔(4성급) 또는 동급                                                                                     |          |
| 2월 13일 | 정주   | 전세기     | 19:00 | 호텔 조식 후 하남성 박물관, 황하 유람구 관림.                                                                                  | 조식 중식    |
|        | 인천   | CZ8089  | 21:50 | 현지 중식 후 대한은 유적 관림. 전세기로 귀국.                                                                                  |          |

MEETING ○ SENDING ○ GUIDE FEE ○ AIRPORT ○ SIGHTSEEING ○

REMARK 불포함사항: 기사와 가이드 팀, 비자수수료 포함사항: 현지 가이드, 차량, 식사, 호텔(2인 1실), 여행자, 인천공항세, 전쟁보험금, 출국세 (전체비용 포함) 전세기 인 관계로 출,도착 시간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 신청마감: 2005년 1월 24일 ◆ 계약금: 150,000원 ◆ 비자수수료: 18,000원  
◆ 연락처: (주)격린여행사 TEL 02)332-4522, 8922 FAX 02)337-3231, 3858